

## 人癡

백 승 휘  
소설가

동수가 정희를 만난 건 시골 살림을 정리하고 도시 근교로 이사 온 다음 날이다. 정희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뽀뽀하고 새카만 머리에 예쁜 가마를 얹전히 얹힌 아이였다. 직수굿하게 숙인 뒷머리 아래 잔털 없이 선 고운 뒷덜미는 하얀 무처럼 시원해 보였고, 사뭇한 하늘색 교복을 받쳐 입은 어깨엔 그 흔한 비듬 하나 없었다.

※

종이 울렸다. 낮선 영역엔 경계와 탐색이 있다. 그것이 끝나면 본격적인 힘을 내세워 서열을 정하려는 것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 동수는 어깨에 힘줄 좀 세웠다고 하는 아이들이 전학해 온 자신을 신고식이란 이름으로 ‘다구’

---

잠을 잘 잘 알고 있었다. 동수의 선택은 고개를 뺏뺏이 세우느냐 마느냐다. 고갯 세워서 받는 보상은 틈날 때마다 종주 먹을 들이댈 그들의 간섭을 덜 받는다는 것이고, 숙여서 받는 보상은 그들 그늘 밑에서 쫓대 없이 시계추 같은 생활로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이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슬리퍼 끄는 소리가 길게 이어진다 싶더니 세 명의 아이들이 동수를 비켜놓고 섰다. 이죽거리는 말투 속에 혀 짧은 욕이 툭툭 튀어나왔다. 동수는 긴장했다. 그러나 책상 앞으로 바짝 다가선 아이가 동수를 제쳐두고 짝꿍을 이룬 옆자리 정희에게 짝자를 놓기 시작했다.

“야, 새끼 보래. 참 기집처럼 생겨 갓곤,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다.”

“야, 니 옷 좀 뺏겨보자. 중간에 좇뿌렁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럴 거 뭐 있어. 지금 뺏겨 보면 되지. 저 새끼, 저 봐라. 저 야들야들한 살. 한번 확 뺏겨 놓고 뭐가 달렸는지 봤으면 좋겠다.”

완력깨나 쓸법한 한 아이의 말에 옆에 두 녀석이 킬킬대고 웃었다.

그런 두 녀석이 새치름하게 앉아 있는 정희의 어깨에 우악

스럽게 손을 얹었다. 이걸 숨죽여 지켜보던 반 아이들은 고  
갸 외로 돌려 외면했다.

반 공기는 무겁게 착 가라앉았다. 동수는 자기 옆에 앉은  
아이의 손이 가녀리게 떨고 있는 걸 보았다. 분처럼 곱고 하  
얀 창호지 같은 손 등의 푸른 힘줄도 겹을 먹었는지 어지러  
이 기고 있었다. 동수는 그 애의 손을 가만히 토닥였다. 그  
러자 그 애는 얼굴을 살며시 들었다. 동수는 밥 뜨물 말라  
터져 일어난 자기 얼굴과 달리 강강하지만 꽃향기를 풍기는  
그 애 얼굴을 보았고, 거기다 꽃 수술처럼 말려 올라간 속눈  
썹과 그 안에 물기 젖은 커다란 눈망울을 보았다.

“어이, 야들아. 겨우 애 하나 두고 뭐하냐? 불알 차고 나  
온 아새끼들이 할 짓은 아니잖여.”

방금 전학해 온 동수의 말이었다. 잠자코 앉아 있어야 할  
동수의 난데없는 이런 말에 세 아이는 황당하다는 듯 눈만  
끔벅대었다.

“궁까 니털은 셋이고 야는 하나고 해서 말잉께. 보래이.  
야가 어디 느그들하고 한판 뜰 몸인가. 느그 말대로 야들야  
들하니 어데 히마리라도 있어야 내가 가만히 있을 거 아닝  
가. 글치 말고 어쨌거나 야는 내 칭군께 그냥 없던 일로 하  
면 서로 피차 피곤하진 않을 것 같은디, 어때?”

동수의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녀석이 주먹을 날렸다. 마치 그걸 알고 있었다는 듯 동수가 몸을 살짝 틀자 주먹을 뺀친 아이는 제풀에 나가떨어졌다. 두 녀석이 미리 자세를 취하고 공격하기도 전에 동수의 머리가 먼저 상대 이마에 닿았다. 아이 하나가 책상을 밀치고 나동그라졌다. 반 아이들의 모든 눈이 한곳으로 쏠렸다. 동수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아이의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귀엣말로 속삭였다.

“이쯤에서 서로 접는 게 좋을 것 같은디. 더하다간 우스운 꼴 벌어지닝께. 그만 자리에 가 앉는 게 어때? 정식으로 한 판 붙을라카른 변소 뒤로 나오든가.”

싸움은 싱겁게 끝났다. 이 광경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정희는 그제야 동수에게 눈인사를 했다.

“웃따, 짹짹한테 침으로 기분 좋은 인사 받아보네.”

\*

친구가 없던 정희가 동수를 만나고부터 생긴 즐거움이란 동수를 기다리는 거였다. 학교를 파하면 일찌감치 정문 앞에서 동수를 기다렸다. 동수를 곁에 두고 함께 걷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희 집은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잘사는 동네로 알

려진 곳인데, 입구는 다져놓은 무궁화 문양의 보도블록을 깔았고, 집은 도시계획지구 내 빨간 벽돌로 벽체를 세운, 지붕을 급격히 내려 간 서양풍의 이층집이었다. 하지만 하나 같이 전깃줄에 줄느런히 맞춰 앉은 제비들 같았다.

이런 정희와 달리 동수는 금아천 징검다리 아래 난 논들밭들을 한참 걷고 산 밑 허리를 돌아야 만날 수 있는 집에서 살았다. 울바자도 없는 마을로 들어서면 두둑이 오른 개자리를 폭 짙고 선 빼박한 굴뚝이 쓰러질 듯 눈 가장자리로 기운, 몇 채 되지 않은 집들이 모여 있는 동네였다.

동네와 학교를 가로지르는 천에 큰비라도 내려대면 동수는 징검다리를 포기하고 한참 돌아 저 하류에 놓인 유일한 다리인 금아교를 건너 집에 가야만 했는데, 그럴 때면 으레 정희는 동수를 자기 집으로 끌었다.

한여름, 숫제 양동으로 퍼붓듯 굵고 큰비가 내리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책가방을 머리에 이고 뛰었다. 물 먹은 종잇장처럼 맨살에 착 달라붙어 겨드랑이를 슬어대는 교복이 거추장스러우면 벗고 뛰었다. 그렇게 한참 뛰어 물에 빠진 생쥐처럼 처마 밑으로 기어들면 잔못처럼 솟은 머리칼 사이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서로의 모습에다 대고 손가락 총을 쏘며 들은 깔깔대고 웃었다. 갓 사서 입은 듯 하얗게 빛나는 팬티를 입은 정희와 구멍 송송 뚫린 누런 팬티를 입은 동수는 의자를 창문으로 끌어당겨 턱 괴고 꽤 오랫동안 비 내리는 걸 구경했다. 비가 잦아들 즈음 뜬금없이 정

희가 스케치북에 물음표를 크게 써서 동수에게 내밀었다.

“너, 이게 뭐지 아냐?”

“뭐긴, 물음표지.”

“임마, 누가 그걸 몰라서 묻냐. 그 옆 글자를 보란 말야.”

물음표 옆에 희이 비스듬하게 쓸러 앉은 한자가 있었다. 조그맣게 ‘人癡’라 쓰여 있었다. 귀퉁이로 떨어질 것만 같이 아슬하게 붙어 있었다. 한자를 전혀 모르는 동수는 스케치북을 눈으로 밀었다 당겼다 했다. 심드렁한 표정으로 동수의 그 모습을 본 정희는 창밖 하늘로 눈길을 두었다.

“너석, 꼴 좀 뻘뻘하고 근육 나온 것 좀 봐. 괜찮은데. 만져도 돼?”

“.....?”

동수의 허락도 떨어지기 전에 정희는 반 조개처럼 손을 오므려 동수 가슴에 대었다. 손바닥 안으로 동수 젖꼭지가 들어왔다. 정희의 손이 떨렸다. 여린 날개깃처럼 가녀리게 떠는 정희의 손을 동수도 느꼈다. 창틀에 튀어 오르는 찬 빗방울은 둘의 가슴을 연신 때려 대었다.

※

초여름 매미 울음소리만큼 기승을 부리던 더위는 쉬이 꺾

일 줄 몰랐다. 깐깐오월이라 했다. 창문이란 창문을 모두 열어 놓고 수업을 진행해도 덩건 매한가지였다. 이 수업 끝나면 방학이란 사실에 들뜬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좀 쭈신 엉덩이를 자꾸 들썩였다. 그럴 때마다 의자는 삐걱거렸다.

여름 방학을 고대하는 것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들 연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빼물었다. 종이 울리기만을 학수고대하던 아이들의 바람에 화답이나 하듯 종은 찌릉찌릉 울렸고 소리는 복도를 빠르게 흘렀다. 아이들 외침 소리는 교실 밖 배롱나무꽃을 흔들며 났다. 이제 친해질 대로 친해진 아이들이 삼삼오오 어울려 짧아진 그림자를 뒤쫓고는 재빠르게 빠져나갔다.

책을 주섬주섬 담아 가방 정리를 하던 동수는 썰물처럼 나가버리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그저 부럽다는 듯 바라볼 뿐 이렇다 할 표정을 짓지 않았다. 여름 되면 해야 할 집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옥수수 키만큼 무섭게 자란 밭풀을 매야 하고, 훗훗 달아오른 논물 속 거머리에 개 의치 않고 들어가 피를 뽑거나 물꼬를 봐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동수야, 우리 떡 감고 가자.”

“안 되는디.”

“안 되긴 뭘 안 돼야. 그냥 시원하게 떡만 감는 건데. 대신 늦었다 싶으면 내 자전거 타고 가면 되잖아.”

뭐라 말 못 하게 동수 입을 옥죄는 정희였다. 동수를 잡아 끌었다. 이내 둘은 독길 따라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오금 드리 풀 쏜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내달렸다.

천변 넘어 논둑길로 곧장 가면 작은 동산이 나온다. 층층 밭을 꼭대기까지 둔 동산엔 한여름 띄약별을 온새미로 받고 자란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다. 이맘때면 종이 보자기 안 복숭아가 새근새근 잠든 채 저도 모르게 익어갔다. 풀썩에 잔뜩 웅크린 동수 몸 뒤로 정희가 바짝 따라붙었다. 복숭아 밭이 한발 넘게 층이 졌지만, 동수는 용수철처럼 훌쩍 뛰어 올라서는 가장 잘 익은 복숭아밭으로 몸을 낮춰 기어갔다. 저 건너다보이는 주인집과 원두막 사이에 맞닿는 시선을 피해야 들키지 않는다는 걸 아는 동수다. 해진 러닝셔츠의 한 쪽을 묶고 가지가 흔들리지 않게 가만가만 복숭아를 따서 담았다. 복숭아 가지가 흔들리면 서리한다는 걸 매구눈처럼 알아채는 주인이다. 한 자루 더넘치게 따서 담은 동수가 뒷 걸음질로 살살 물러나왔다. 그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득의양양하게 왔던 길을 되짚어 달렸다.

도시와 아주 멀리 떨어진 금아천 상류로 뛰어갔다. 자란 자란 넘칠 듯 흐르는 물을 가둬 놓은 키 작은 보 아래로 복숭아 가득 담긴 러닝셔츠를 통째 던졌다. 물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 복숭아가 한참 만에야 떠올랐다. 까슬까슬한 복숭아 털을 물에 씻고는 한입에 베어 물었다. 단물이 입 언저리로 흘러나왔다. 다 먹지도 않고 반 넘어 남은 복숭아를 아래



쪽으로 훌쩍 던진 돌은 가녀린 물이랑이 생기는 얇은 물 쪽으로 뛰었다. 어른 주먹만 한 자갈을 돌아 흐르는 흰 여울엔 물비늘이 돋았다. 얇은 물에 발을 제겨디디면 발뒤꿈치로 무너져 내리는 성긴 모래의 새살땀이 있는 곳이다.

여름 더위에 지치고 집일에 지친 동수는 누가 보거나 말거나 서둘러 옷을 훌러덩 벗었다. 물속에 먼저 들어가 물장구를 동동 쳐대던 동수는 자기를 가만히 지켜보는 정희를 향해 냅다 소릴 질렀다.

“정희야, 왜 안 벗어. 얼릉 벗고 들어 와.”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 해 하는 동수와 달리 정작 먹 감자 말한 정희는 주춤거렸다.

“야, 너 거기 안 까져서 그러냐. 야, 봐라 난 반 까졌다. 뭐 어쩌냐? 남자끼리.”

이렇게 말한 동수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정희는 동수가 말한 ‘남자끼리’란 말을 속말로 되받으며 알듯 말 듯한 말로 중얼거렸다. ‘그래 남자끼리지’

“어, 완전 까졌잖아. 뭐야 나보다 나은데. 언제 잡았냐?”

“엄마가. 그래야 남자 된댔어.”

뒷말을 다 맺지 못한 정희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사타구니

를 쥐고는 물속으로 퐁퐁 뛰어들었다.

“자속, 푹푹하니 예쁘고 좋구만.”

둘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맥질해가며 신나게 놀았다. 모래 속에 숨은 모래무지를 잡으려 버르고, 물풀들이 다옥하니 자란 곳에서 붕어를 잡겠다고 발을 엇갈아 재우쳐댔다. 잡풀을 젖힐 때마다 동수의 등 근육이 실룩댔다. 정희는 동수 등 뒤로 가서 가만히 동수를 껴안았다.

“어, 새까. 뭐하는 짓이야.”

“가만 있어 봐. 네 등짝이 하도 시켜대서 때 밀어주려니까.”

“별에 그을린 거지, 때가 아니라구.”

“때가 아니긴. 이 봐 때가 한 움큼 나오잖아.”

정희의 언죽번죽한 거짓말에 동수는 등을 내맡겼다. 고길한 마리라도 잡아보겠다고 고집스럽게 풀숲을 헤쳐보지만, 고기들은 용케 달아났다. 동수의 몸 비눗이 커질수록 정희는 동수를 더 세게 껴안았다.

“동수야, 너 이거 아니? 머슴아가 머슴아가 아닐 수도 있고, 머슴아가 머슴아를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

“뭘 소리야?”

정희는 자기 말을 무지르는 동수가 야속했는지 썰썰하게 입술을 내밀고는 물 밖으로 새우 튀듯 나왔다. 따라 나온 동수는 먼저 누운 정희 옆자리를 차지하고 풀밭에 나란히 누웠다.

“저 구름 봐봐. 꼭 남녀가 흘레질하는 거 같지 않니?”

“개새끼 흘레질 한단 소린 들어봤어도 사람들이 흘레질 한다는 소리는 침 들어본다. 근디 무슨 구름이 흘레질 한단 거야. 내 눈엔 그저 그런 구름들인데.”

동수는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풀이나 씹 흘었다. 팽이밥이었다. 입에 넣고 찹찹 씹었다.

“야, 너 그거 독초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먹어.”

“녀석, 독초는 무슨…… 시골 촌놈을 뭘로 보고, 자, 너도 먹어 봐. 시큼한 게 먹을 만하다. 죽어가는 고양이도 이 풀 먹으면 산다. 그래서 팽이밥이다.”

정희도 조심스럽게 입에 넣고 새김질하듯이 씹었다. 신물이 물큰 올라왔다. 한쪽 눈을 찡그렸다. 정희는 좀 강해 보이는 풀을 꺾어 동수에게 풀 시루자고 했다. 끊어지는 쪽이 지는 풀싸움이였다. 그러나 시골에서 자란 동수에게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제풀에 지쳐 모로 누웠다. 시퍼런 풀물이 손끝에 배길 때까지 풀을 만지작거리던 정희는 어렵게 입을 뗐다.

“동수야 한 번 만져 봐도 될까?”

“뭘?”

“너 여자 몸에 ‘지’자로 끝나는 말이 뭐, 뭐 있는지 아냐?”

정희의 이런 난데없는 질문에 동수는 넓적다리에 힘이 들어가며 아랫도리가 묵직해졌다.

“음마, 이 녀석 고추 크는 거 보래이.”

이 말에 숫접은 동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바보야. 모가지, 해골바가지, 코딱지, 배때지, 엄지, 검지, 약지, 잡지가 있잖어.”

“잡지?”

“그래 잡지.”

“인석, 보기보다 의문스럽네. 너, 여자의 그것 생각했지?”

정희의 말에 속내를 들켜버렸단 생각이 든 동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냉큼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몰라 자숙아. 나 갈터.”

그러나 정희는 지르통해진 동수의 뒤통수에 대고는 소리쳤다.

“바보. 나같이 어지자지도 있다!”

※

중 2년이 끝나고 중 3 넘어서기 무섭게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정희는 정해진 코스대로 인문계 고등학교엘 들어갔다. 그러나 동수는 「산업역군 조국근대화의 기수」란 그럴싸한 슬로건에 따라 산업현장 일꾼을 마구 뽑아대던 시기에 맞춰 일찌감치 진로를 공업계 고등학교로 정했다.

서로 다니는 학교가 다르고 멀리 떨어졌음에도 한동안 정희는 중학교 때와 다를 것 없이 동수 학교 앞까지 와서 동수를 기다렸다. 동수는 그런 정희를 친구 이상으로 기뻐하며 반겼다. 동수 또한 정희의 어린 면이 고등학교 가서도 놀림을 받지 않을까 하여 정희 학교 앞까지 몰래 찾아가 정희를 살피보기도 했다.

정희와 같이 인문계를 선택한 아이들의 목표는 대학 진학이다.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이때란 생각에 놓여나지 못한 아이들은 중학교 때와 달리 더 치열하게 서로의 눈치를 보며 공부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소소리 놀음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패를 지어 싸질을 일삼는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다를 것이 없다. 중학교 때와 달리 더 몸집이 커진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성징은 호기심을 넘어 실제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득 담은 활화산 같은 것이다.

정희는 고등학교에 들어 중학교 때 1등 하지 못했던 한을

풀려는지 첫 학기부터 1등을 도맡아 했다. 1등 한 아이한테 쏟아지는 시선은 궁금증을 넘어 시샘을 유발하기 딱 좋았고, 거기다 정희의 외양은 고등학교 와서도 달라진 것 없었다. 얼굴 중앙에 콧 찍어 붙인 것 같은 코는 반듯했고 콧등은 곱돌처럼 매끄러웠다. 가는 붓꼬리처럼 이마 아래 빗긴 눈썹과 더 짙게 내리깔린 속눈썹, 그 안에 든 구슬처럼 검은 눈동자는 누가 봐도 그림 속 여자였다. 그런 정희를 가만히 놔둘 것 같지 않은 분위기는 어느 정도 서열이 정해지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

교문을 나서기 전 교문 바로 옆엔 민방공 훈련용으로 만들어 놓은 방공호가 있다. 교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주택가를 한참 멀리 둔 방공호 옆에는 키 큰 측백나무와 버즘나무가 있어서 그 어느 곳보다 어둡이 짙고 깊어 여간해선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이다. 아무리 소리가 커도 나무에 걸려 더 나아가지 못하는 곳이 그곳이었다. 선생들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곳을 아이들은 용케 자기들만의 장소로 정해놓고 이슬한 밤이면 별 볼 일 없는 작당을 꾸며대었다.

언제나 밤늦도록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정희를 유심히 살폈던 아이들 중 한 명이 집으로 가려던 정희를 꺾어냈고, 정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산채에 가까운 그들 무리 속으로 의심 없이 따라갔다.

공고를 다니는 동수는 그날 정희에게 줄 거라고 몰래 선반에다 신주(황동)를 물려 술잔을 깎았다. 공고생들은 누구나 한 번쯤 그것을 깎아 소장품처럼 간직하는 게 유행이었다. 인문계 학생보다 일찍 수업을 마치는 공고생들이었다. 동수는 서둘러 자전거 핸들을 앞장세워 정희한테 갔다. 먼저 나와 기다리려야 할 정희는 없고 가로등 불빛만을 쫓는 나방들만 퍼덕거렸다. 아직 불 꺼지지 않은 교실로 찾아간 동수는 한 아이에게서 정희가 좀 전에 나갔단 말을 듣고 길이 어긋났나 싶어 자전거 핸들을 급히 돌려 원래 자리로 갔다. 가방에 꽂고 다니던 제도용 T자가 동수 다리를 건드리는 바람에 자전거와 함께 고꾸라졌다. 그때 희미한 비명이 동수 귀에 잡혔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동수는 자전거를 일으켜 세워 가장 어두운 곳만 찾아서 페달을 있는 힘껏 밟았다. 아 니나 다를까 폭 꺼진 방공호에 구릿한 담배 연기를 연신 내뿜던 네댓 명의 아이들이 정희에게 농지거리를 해대고 있었다. 후크 단추를 시작으로 밀 단추 두세 개가 어디로 달아났는지 앞섰을 어느 정도 풀어헤쳐 진 정희는 봉변당하고 있었다. 털썩 넘어가는 자전거 소리에 놀란 것은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어둠을 등지고 선 것이 동수란 사실을 안 정희는 두려움에 젖은 목소리로 동수를 불렀다. 그런 정희를 본 동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고, 제도용으로 쓰는 커다란 T자를 반으로 잘라 다짜고짜 한 아이의 어깨죽지를 내리쳤다. 먼저 한 녀석을 순식간에 고꾸라뜨리고 나머지 아이들이 뭘

일인가 싶어 정신도 챙기기 전에 또 한 녀석을 크게 패대기 쳐버리자 그 힘에 놀란 아이들이 제풀에 꺾였는지 눈만 멀 뚱히 뜨고는 동수를 바라보았다. 뚱어! 라는 동수의 거친 한 마디가 방공호를 낮게 깔았다.

그 이후로부터 학교에 어떤 소문이 퍼졌는지 정희에게 짹 짹대거나 놀려대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

금아천 넘어 정희가 살던 동네는 또 한 번의 탈바꿈으로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서 도시의 위용을 자랑했다. 그러나 동수가 사는 동네는 예나 제나 큰 변화가 없는, 소외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겨우 한 거라곤 우마차가 다니던 길을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실개천을 메워 복개도로를 만든 것뿐이다.

아직도 농사가 주를 이룬 마을이라 대도시로 농작물을 팔아다 파는 길로 그냥저냥 먹고 살았다. 별반 나아지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동수는 그나마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경운기 한 대를 사서 예전보다 품을 덜 들이고 힘들게 노동하지 않아도 될 만큼 농사를 지었다.

그렇게 경운기에 시동을 걸려는 참이었다. 그때 가늘고 빠른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어머니답지 않은 달뜬 목소리였다. 경운기 시동 핸들을 도로 빼고 관절을 일으켜 세우려는 그때 푸드득 소릴 내며 죽어버리는 경



운기 뒤로 많이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다.

“동수야 보래이 누가 왔는가. 니 친구 정희가 왔네. 아이 구야 많이 컸고만. 아즉도 가시나 같은 얼굴은 그대로네. 까 까머리가 치렁치렁한 머리로 자란 것 빼놓고는. 서울에서 대학교 땡긴다드만. 니는 공부 참 잘했제. 공부 잘했응께.”

어머니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아들과 친구 정희의 추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듯 과거를 아는 대로 꺾 맞추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한쪽 손가락이 뭉텅 잘려 나간 동수 손에 꽃혔던 눈길을 급히 거두고 정희 양 팔을 주무르며 눈물을 흘려냈다. ‘공부 잘했응께’ 뒷말에 이어 달려 했던, 그러니까 ‘동수도 너와 같은 고등학교를 보냈으면 저런 험한 꼴 안 당했을 텐데’란 그 자신 탓으로 돌린 짝한 모성애를 더는 잊지 못하고 맺었다.

마당을 질러 부엌으로 들어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던 동수는 정희 쪽으로 몸을 돌렸다. 환한 미소를 담뱃 지은 정희가 다가왔다.

동수의 유난히 커 보인 주먹 아래 힘없이 놓고 있는 왼손 장갑은 무척 혈렁했다. 자그마하게 움직여도 장갑이 먼저 접혔고 먼저 숙였다.

정희는 허공에서 놓고 있는 동수의 왼손 장갑을 벗겼다. 동수는 부끄러운 것을 들킨 것마냥 얼굴을 붉혔다.

그 옛날 동수 등쪽에 대고 가녀리게 떨었던 정희 손길 대신 이젠 동수 손이 떨렸다.

※

공직자였던 아버지 따라 서울 간 얘기며 서울 경아리들을 용케 따라잡아 공부한 얘기,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뜻에 맞춰 대학 간 얘기들을 풀어 놓는 정희의 말에 그간 마음을 단 았던 동수는 관심을 보이며 술잔을 들이켰다.

“아, 그런데 말야. 이 꼬라지가 무에 좋다고 가스나 하나 가 붙대. 삼삼한 서울내기 계집앤데, 계집 같은 머슴아, 머슴아 같지 않은 머슴아인 내가 무에 좋다고 날 졸졸 따라다니던지. 사실 난 관심도 없고, 그렇게 매달리는 애에게 자신도 없었지. 내내 배 돌았지. 그렇게 하면 제풀에 나가떨어질 줄 알고 말야. 아, 결국 사달이 났어. 그런 나의 행동이 그녀를 더 건뭉 달게 했던지, 어느 날 나를 화장실로 끌고 가드만 내 입술을 찾아 찢한 키스를 퍼붓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날 본 거야. 소스라치게 놀라대. 애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내 그곳에 슬며시 손을 대보는 거야. 묵직하게 올라와야 했을 내 것이 분위기 못 타고 가만있는 것을 눈치챘는지 냅다 싸대기를 올려붙이데. 허, 얼굴에 졸지에 맞았어. 난 알았지. 내 팔자는 이성애 대고 사랑을 호소할 팔자가 아니란 걸.”

이런 말을 주절주절 늘어놓던 정희는 술잔을 단숨에 비웠  
다. 긴 속눈썹 안에 든 새카만 눈동자가 술잔에 어른거렸다.

“나, 니 얘기 다 들었다. 손 잘렸다는 거. 너 그 손으로 나  
를 위해 고기 한 마리 잡아주라.”

“고기?”

“그래, 고기. 옛날에 나를 위해 고기 잡았던 것처럼 오늘  
날 위해 고기 한 마리 잡아 주라.”

※

동수와 정희는 한 방에 누웠다.

“동수야, 나, 군대 간다.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무서워. 살면서 이렇게 무섭긴 처음이야. 나, 정말 세상 사  
람들이 보는 그대로 평범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사  
람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게 무섭고 싫어. 너와 반 갈라지고  
나서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언제나 모든 게 낯설었지  
만, 너와 떨어져 있다는 게 제일 무섭고 힘들었어. 생각 같  
아선 하루 열두 번도 더 너를 만나러 가고 싶었지만 애떨이  
이상하게 볼까 봐 그러질 못했다. 대신 죽어라 하고 공부만  
했지. 난 정말 딴 세상에서 온 애 같애. 아니 이곳이 딴 세상  
같애. 난 태어나선 안 되는 애였어. 나, 정말 군대 가면 잘  
할 수 있을까? 잘 버텨 낼 수 있을까?”

정희가 꺼낸 말속엔 잔뜩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정희가 어깨를 가녀리게 흔들어 대었다. 동수는 깊은 어둠 속에서도 턱선 곱게 그려진 강강한 정희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쓸었다.

“걱정 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지금껏 잘해왔잖아. 넌 잘 할 수 있어.”

동수는 정희 얼굴을 자기 가슴으로 끌어와 꼭 안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훈련소에서 주는 밥 잘 먹고 훈련 열심히 받고 있다는 정희의 편지가 왔다. 정희의 잔질어 약한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동수도 편지를 열심히 써서 여러 번 부쳤다. 자대에 배치됐단 소식을 끝으로 여러 달소수가 지나는 동안 정희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찢레꽃 필 머리 즈음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군대 보안 검열이란 글씨가 푸르등등하게 찍힌, 선명한 편지 봉투였다. 황급히 편지 봉투를 열어 본 동수 눈엔 선 굵고 활렷했던 정희의 필체라 믿기 어려운 뻘뻘 종잡을 수 없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무엇에 쫓기듯 급히 써 내려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훈련소에 들어가 처음 써서 부친다던 편지도 이렇지는 않았다. 동수는 불길함에 사로잡혀 편지를 급히 읽었으나 마저 읽지 못하고 마루 대들보 옆에 놓인 수화기부터 들었다.

다이얼 원 밖으로 손가락이 자꾸 벗어났다. 수화기 너머로  
정희 어머니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털썩 주저앉은 동  
수 눈엔 정희가 쓴 편지 속처럼 세상이 하얗게 보였다.

동수 보아라

잘 지내고 있지? 나도 잘 지내고 있다.

너가 걱정할까 봐 나 밥도 많이 먹고 살찌려 열심히 운  
동도 하고 있다.

이곳은 아직 바람이 차와서 아침저녁으론 무척 쌀쌀해.

낮 동안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던 밤꽃 향기는 저녁때 되  
면 어찌 그렇게 진하게 한곳으로 모이는지.

그 눅진하게 비릿한 달달함이란 말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근데 왜 나무의 꽃들은 하얗게 피는지 모르겠다.

너와 놀 때 보았던 짙레나무 꽃도 그렇게 하얗더만.

하얀 걸 보면 슬퍼져.

점심 나절 잠깐 꿈 속에서 빗속을 너와 함께 달린 거며,

너와 함께 먹 감은 거며,

너희 집에서 나란히 누워 조곤조곤 얘기한 거며.

근데 그렇게 잠시 꿈이 커튼이 닫힌 것처럼 시커멓지  
않고 왜 꿈이 하얗게 변할까?

어제도 완전군장을 매고 연병장 한 바퀴 도는데 그놈의 냄새,  
여름 냄새,

바람에 실려 오는 복숭아꽃 냄새가 나를 미치게 하더구나.

난 그저 우두커니 서서 그 향기 나는 곳으로 머릴 돌렸지.  
 내가 향기에 취해 발걸음을 멈추고, 아니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날 잠깐이라도 내버려 두었으면 했어.  
 그들은 내 허리 굽은 곳 아래 핀 꽃을 잔인하게 군홃발  
 로 뭉개더군.  
 군기가 빠졌다나. 그리고 빠졌으니 채워줘야 한다며 날  
 뒤에서 껴안는 거야.  
 나날이 더해지는 그 수모와 고통.  
 밤꽃이라면 좋을 그 내음을 밤꽃향이라며 잠든 내 얼굴  
 에 대고 질펀하게 쏘아대는 그들의 체액.  
 이를 악물고 버티려 했어.  
 동수야. 나, 다시 태어나면 니 각시 할 거다.  
 니 빨래 해주고, 밥도 해주는.  
 우렁각시 말고 정말 너와 결혼해서 니 각시 돼서 같이  
 살고 싶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너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난 하얀 나비가 돼서 훨훨 저  
 하늘을 날고 있겠지.  
 동수야 잘 있어.  
 정말 고마웠어.

-사랑하는 정희가-

인본소설